

숫자로 되돌아보는 2000년 출판계

'21세기'가 제목으로 들어간 책만 128종...

〈해리포터〉 시리즈는 하루에 7천부꼴로 팔려

새천년을 맞아 서점가에는 21세기와 관련된 단어가 제목으로 들어간 책이 쏟아져 나왔다.

돈과 부자, 성공이 들어간 책도 활개를 쳤다. 올해 가장 비싼 책은 24만원이고 가장 책을

많이 쓴 사람은 소설가 이윤기씨다. IMF 이후 위축됐던 출판시장을 활황 국면으로 반전시킨

일등공신은 이른바 '빅5'. 〈해리포터〉 시리즈를 비롯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가시고기》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마라》 《국화꽃 향기》가 '대박'을 터트리면서 밀리언셀러 반열에 올라섰다.

올해 서점가도 새 밀레니엄을 축복했다. 21세기를 맞이해 미래를 전망하고 변화를 모색하는 책들이 봇물터지듯 쏟아져 나온 것이다. 21세기와 2천년 등 새 밀레니엄을 뜻하는 제목을 단 책들이 인문·사회, 역사, 문학, 경제·경영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서점가를 수놓았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미래를 알고자 했고, 책은 새로운 세기를 준비하라고 유혹했다. 올해는 2천년과 21세기, 새천년, 미래, 변화, 비전, 전망 등이 제목으로 들어간 책들이 서점가를 점령한 한해였다.

경제·경영서에는 돈과 성공 같은 낱말 많이 들어가

대한출판문화협회(회장 나춘호, 이하 출협) 납본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출간된 책 가운데 '21세기'가 제목으로 들어간 책이 가장 많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21세기를 지배하는 키워드》(김영사) 《21세기를 살아갈 그대에게》(학원사) 등 모두 128종이 출간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도 제목에 '2000년'이 57종, '미래'가 48종, '비전'이 28종, '전망'이 16종 들어가, 새천년·미래와 관련된 제목을 단 책이 200종을 웃돌았다.

경제·경영서 가운데는 특히 돈, 성공 등과 관련된 말이 제목에 들어간 책이 많았다. 사람들은 지식을 쌓고 자신을 성찰하기 위해 서가 아니라 돈을 벌고 부자가 되고 성공하기 위해 책을 읽는 것처럼 보였다. '당신이 부자가 되고 성공할 수 있는 비결이 여기에 있다'고 노골적으로 유혹하는 책들이 쏟아져 나왔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황금가지), 《남자처럼 일하고 여자처럼 승리하라》(해냄) 등 돈에 관한 철학과 성공론을 갈파한 책들이 베스트셀러 상위권을 줄곧 지켰다. 출협 납본실에서 이들 제목이 들어간 책을 조사한 결과, 제목에 '성공'이 들어간 책이 93종, '돈'이 들어간 책이 67종, '투자'가 들어간 책이 65종이나 됐다. 이 밖에도 '주식'이 들어간 책이 52종, '창업'이 들어간 책이 23종으로 집계됐다. 이들

책을 합하면 모두 300종으로 하루에 약 한권꼴로 이 분야 책이 나왔다는 말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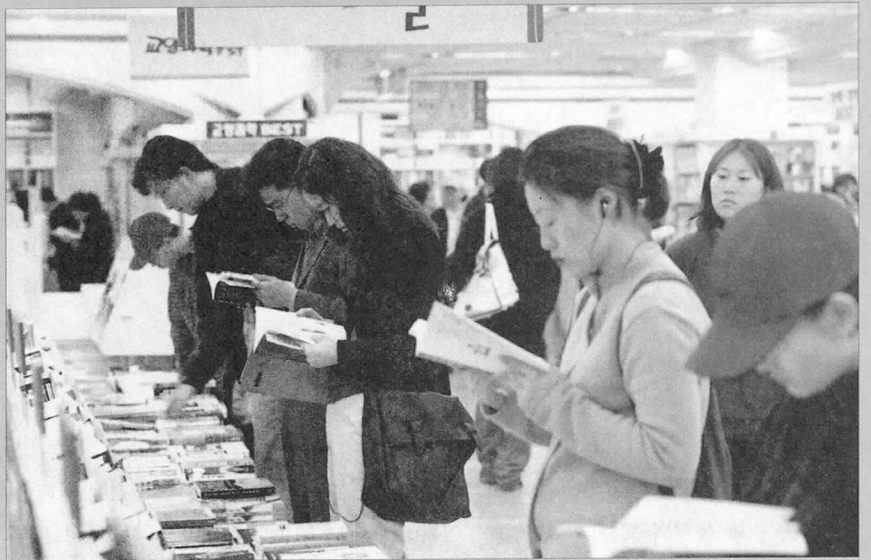
서점가 점령한 '빅5'

올 서점가는 문학수첩의 〈해리포터〉 시리즈(문학수첩)를 필두로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가시고기》(밝은세상),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사회평론), 《국화꽃 향기》(생각의나무)가 이끌었다. 이 가운데 가장 많이 팔린 책은 〈해리포터〉 시리즈다. 지금까지 모두 250만부가 팔린 것으로 출판사측은 자체 집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가구수를 약 1천만으로 추산할 때 네가구당 한권씩 이 책을 구입한 꼴이다. 지난 해 11월에 출간된 이 책은 올해만 235만부가 팔려 나갔다. 하루에 7천부 이상 팔려나간 셈이다. 그리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와 《가시고기》가 각각 90만부로 그 뒤를 잇고 있다. 이 외에 《영어공부 절대로 하지 마라!》 《국화꽃 향기》가 각각 80만부와 52만부가 팔렸다. 이들 '빅5'를 합하면 550만부가 팔린 셈인데, 이는 교보문고 매장을 세번 채우고도 남을 분량이다. 그리고 이들을 쌓으면 그 높이가 약 150km로 63빌딩의 568배에 달한다. 거리로 따지자면 서울에서 대전까지 정도가 된다.

교보문고 집계에 따르면, 가장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1위자리를 지킨 책은 《가시고기》다. 무려 20주 동안 연속 1위를 차지했다. 한편, 《부자 아빠...》는 2월 넷째주에 베스트셀러 20위권에 진입해 지금까지 40주 동안 계속 베스트셀러 순위권 내에 머물러 있다.

광고비는 지난해에 비해 격감해

출협 납본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발행된 도서의 초판 중수는 만화를 제외하고 모두 2만 8075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만 86종보다 약 39% 증가했다. 하지만 초판 발행부수는 9095만 1762부로 지난해 9674만 4639부에 비해 약 6% 정도 감소한 것으로



올해 우리 출판계를 '숫자'라는 키워드로 살펴보면, 상당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제목에 새천년, 미래와 관련된 단어가 들어간 책이 200종을 웃돌았고, 돈과 성공이 들어간 책은 160종이나 됐다. 이는 새 밀레니엄과 경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나타났다.

또한 올해 10월까지 발행된 초판 중수 가운데 서울의 출판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만 8002종으로 약 99.7%를 차지했다. 작년에는 지방 출판사의 초판 발행종수가 44만 5445종이었지만 올해는 8만 5300종으로 80%나 뚝 떨어졌다. 문화관광부 출판신문과 집계 결과, 출판사는 올 3/4분기 현재 1만 5879개사로 지난해보다 997개가 늘었다.

출판계가 지출한 광고비는 지난해에 비해 격감했다. 한국광고단체인협회가 펴낸 <광고계 동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출판분야의 광고비는 모두 1208억 9465만원으로 서비스·오락, 전기·전자, 금융보험증권 분야에 이어 4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해 3/4분기의 3086억 8630만원의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치는 수치다. 한편 2000년 3/4분기 300대 광고주에는 96위에 웅진닷컴, 102위에 정보문화사, 121위에 생각의나무, 190위에 김영사, 227위에 자음과모음이 각각 올라 있어 눈길을 끈다.

가장 비싼 책의 정가는 24만원

교보문고 조사에 따르면, 올해 출간된 책 가운데 제목이 가장 긴 책은 박연수의 <www.moneycap.co.kr 진성어음을 알면 투자가 happy해진다>(디지털머니캡)로 영자를 포함해 모두 33자에 달한다. 다음으로 긴 책은 <내 안에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야 할 사랑의 세계가 있습니다>(함께)로 24자다. 제목이 가장 짧은 책은 물론 1자짜리 책이다. 구성희의 소설 <길>(마당문화), 유재기의 <귀>(동문사), 박신환의 <딸>(북미디어) 등 모두 11종이 출간됐다.

1권짜리 단행본 가운데 가장 비싼 책은 <석파도인유란도>(백선문화사)다. 올해 11월 10일 발행된 이 책은 24만원이나 된다. 이 돈으로 3천원짜리 자장면을 사 먹는다면 80일 동안 점심을 해결할 수 있다. 그 돈으로 책을 사서 보는 것이 좋을까 아니면 자장면 80

그릇을 먹는 것이 더 좋을까 고민해봐야 할 문제다. 다음으로 비싼 책은 종문출판사가 펴낸 21만원짜리 <중국명호3>다.

한편, 가장 싼 책은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가 펴낸 이지드 페르난드의 <진정한 중>이다. 이 책은 전체 쪽수가 38쪽인데, 정가는 고작 600원이다. 가장 비싼 책 한권을 살 돈으로 가장 싼 책을 산다면 400원이나 살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가장 두꺼운 책은 <FOREIGN BUSINESS CONTACTS IN KOREA 2001>(코리아데이터뱅크)인데, 무려 1만쪽이고 가격은 12만 8천원이다. 가장 얇은 책은 <몽골>(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 고작 6쪽에 불과하지만 가격은 1천 8백원이나 된다. 가장 두꺼운 책은 두께가 가장 얇은 책의 1666배에 이른다. 쪽당 가격을 비교했을 때 가장 두꺼운 책은 12원이지만 가장 얇은 책은 300원이다.

올해 가장 왕성하게 책을 펴낸 이는 단연 소설가 이윤기씨다. 무려 16권의 책에서 그의 이름을 볼 수 있다. 재출간된 <푸코의 진자(전3권)>와 <장미의 이름(전2권)>(이상 열린책들)을 제외하더라도 모두 11권의 책을 냈다. 한달에 한권꼴로 나온 셈이다. <그리운 흔적>(문학사상사)과 <두물머리>(민음사), 그리고 에세이집 <있만 아름다워도 꽃대접을 받는다>(동아일보사) 등 순수 창작집은 세 권밖에 내지 않았지만, <벌핀치의 그리스 로마 신화> 시리즈(창해)를 비롯해 번역한 책이 8권에 이른다. 창작집과 번역본을 합쳐 올해 그가 쓴 책의 쪽수는 3천여쪽, 원고지로 약 1만 5천매가 넘는다. 하루에 원고지로 약 40매 이상씩 쓴 셈이다. - 최갑수 기자